

특집 : 정보격차해소 방안 사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이영숙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ysooklee@nl.go.kr

· 목 차 ·

- 1. 머리말
- 2. 주요 기능
- 3. 장애인 독서환경 실태조사
- 4.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 5. 마무리

1. 머리말

《시혜에서 인권으로》는 2007년 3월 6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장애인 단체들이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 법은 장애인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겨 동정해 주는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갖춘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장애인관련 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들과는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동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과도한 부담이나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시설,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 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990년과 1995년 각 각 제정된 미국(ADA)과 영국(DDA)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영미 도서관계는 적지 않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도서관계 또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몇 년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변화를 겪었다. 한 예로 ADA 시행 후 미국의 신시내티대학교의 장애인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은 미국 도서관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신시내티대학교는 미국내에서도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뛰어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결은 간단하였다. 신시내티대학교 총장은 휠체어를 타고 하루 종일 캠퍼스 구석구석을 돌아 다녀보라는 것이었다. 결국 총장은 법원판결에 따라 휠체어를 타고 교정을 살살이 체크하여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바리어 프리(Barrier free) 교정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만족은 대단하였다고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도서관계 또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몇 년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국의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을 위해 이들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종합목록을

구축해 왔으며 또 시각장애인대학생을 위해서는 대학교재를 DB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이용토록 하였다. 특히 2003년~2004년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도서관서비스 TF를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TF 활동을 통해 장애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을 2004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2005년 6월 1일 이미경의원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으로 본격화되었으며 마침내 2006년 10월 4일 개정 「도서관법」이 공포됨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동법 제45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그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

지원센터의 주 고객은 장애인을 서비스해 주는 전국의 공공, 학교, 대학 및 전문도서관들로 이들 도서관들이 장애인들을 비 장애인과 통합하여 서비스해 줄 때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원센터와 관련이 있는 제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주요기능

지원센터는 전국의 장애인들을 직접서비스 해주기 보다 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교육받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들을 지원해 줌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반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도서관법 제45조 ②항에 명시되어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 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이들 기능들은 단계적으로 수행되어 질 것이며 또 서비스의 대상자도 초기에는 장애아동과 대학생을 우선으로 하여 점점 성인으로

확대되어 질 것이다.

3. 장애인 독서환경 실태조사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4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의 공공, 특수학교, 장애인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장애인서비스가 활성화된 대한한밭도서관 등 13개 도서관을 선정, 직접 방문해 관찰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예산 및 인원 부족과 장비의 노후화로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제작에 한계가 있어 자료부족이 심각하다.
- 정보공유 및 업무 협조를 위한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중복제작이 많다.
- 특히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직원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 전문도서나 학습교재, 신간도서(특히 베스트셀러) 등의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점자도서를 제작할 때 출판사와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통해 책을 워드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불편 등도 해소되어지기를 바라며 갈수록 점자악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몇몇 도서관들은 시각 장애인들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장애인도서관, 복지관,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성인들에게 치우쳐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우송서비스나 가정 택배를 선호하므로 도서관시설 투자보다는 자료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자료 부족이 큰 문제로 파악되었음은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장애인도서관, 복지관,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성인들에게 치우쳐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4. 대체자료¹⁾ 제작 및 보급

시각장애성인들의 독서자료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시각장애아동들의 독서자료의 부족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비장애아동들에 비해 독서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해 촉각, 점자 및 음성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 정보화시대 가장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해 수화로 된 동화영상자료들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국내 수화동화영상자료 제작은 전무하며 현재 농아인협회에서 실

험적으로 조금씩 제작하는 것이 전부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210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인구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1,048천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청각장애인(301천명)이다. 청각장애인은 숫자적으로는 많으나 장애가 외관상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타 장애인에 비해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기의 독서를 통한 언어와 인지의 발달은 그 사람의 전 생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아동들의 독서자료의 절대 부족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력을 선천적으로 혹은 유아기에 상실한 청각장애인들은 주로 수화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수화는 구화와 달리 어순도 다르며 표현도 간결하다. 따라서 건청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언어는 이들에게는 외국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도서관의 책들은 이들에게는 거의 외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도서관이 발달한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이들 장애인들과 또 인지발달이 늦은 정신장애자들

1) 대체자료(alternative format materials)란 감각기관 및 신체의 손상이나 인지발달의 장애로 인해 인쇄물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읽기가 매우 힘든 이들을 위해 기존의 인쇄물을 변형하거나 다른 매체로 바꾸어 제작한 것

〈표 1〉 장애유형별 대체자료의 종류

장애 유형	확대자료 (large print)	음성자료 (Tapes/Daissy ²⁾ / CD/DVD)	점 자 자료	수화/자막영상물	쉽게 쓴 책 (Easy-to-read)
시각	○	○	○		
청각				○	○
읽기/쓰기	○	○			○
지체		○			
인지		○			○

을 위해 원본의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 책(easy-to-read books)들을 제작하여 이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장애로 인해 원본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체자료들을 개발하여 보급하려고 한다.

5. 마무리

지원센터설립 초기에는 주로 자료제작 및 보급이 주요사업으로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도서관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 웹사이트의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접근하는데 필요한 스크린리더 등 컴퓨터 보조공학기술(assistive technology)에 대해서도 산학연 공동연구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센터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실현 되려면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도서관인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거나 회전문을 설치하는 데는 전화 한통이면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선입견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강제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어 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아직도 많은 도서관들이 비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정책을 펴고 있으며 장애인서비스는 여력이 있을 때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은 무엇보다 그들이 사용 가능한 기능을 이용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

2) Daisy(Digital Audio based Information SYstem)란 디지털 녹음도서 제작의 한 형태로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현재 많은 나라들이 녹음도서제작의 표준으로 삼고 있음



육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한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준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일찍부터 선진국들이 장애인정책을 지원에서 교육 및 재활로 전환하였던 것이 바로 장애인

들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이 주류사회에 동참시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평생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을 통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가 된다. 반면에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되는 것이다. 도서관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평생교

자로 만들어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즈음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진정한 발전은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을 더해 주는 것이라기보다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의 빈곳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㉞



*본 글의 그림은 필자가 제공한 자료임.